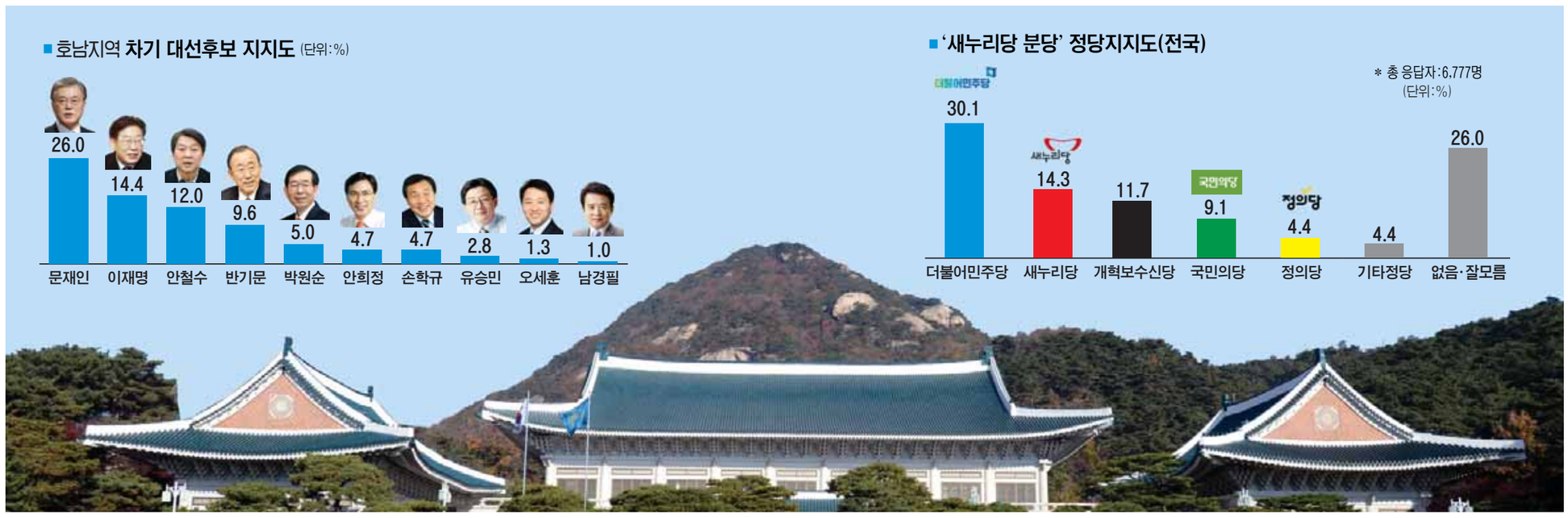
반기문 대구·경북서, 문재인 호남서 '더블 스코어' 앞서

한국지방신문협·리얼미터
전국 6777명
신년 여론조사



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

潘, 충청 보다 대구·경북서 文, TK 제외 전국서 고른 지지
50세 이상 潘, 20~40대 文 선호
이재명 호남·수도권·강원서 10% 이상 두자릿수 지지율
안철수 광주·전라권 12.0% 1년만에 20.0%P 이상 빠져

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 ±1.2%P)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최근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반 전 총장이 23.0%의 지지율을 얻어 조사 대상 15명 중 1위를 달렸고, 문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인 22.5%의 지지율로 반 전 총장을 바짝 뒤쫓고 있다.

반 전 총장은 광주·전라권인 호남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 전 대표를 앞섰다. 특히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·경북에서 문 전 대표를 2배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에서 반 전 총장을 '더블 스코어' 이상 앞섰고, 대구·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중이다.

이처럼 2명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.4%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다. 이어 ▲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(5.9%) ▲안희정 충남지사(4.4%) ▲오세훈 전 서울시장(3.8%) ▲박원순 서울시장(2.8%) ▲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(2.6%) ▲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(2.2%) ▲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(1.1%) ▲남경필 경기지사, 홍준표 경남지사(각 1.0%) ▲정운찬 전 총리, 원희룡 제주지사(각 0.4%) ▲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(0.3%) 순이었다.

지난 10년간 유엔을 이끌고 지난달 31일 퇴임한 반 전 총장은 자신의 고향인 대전·충청권(28.0%)보다 대구·경북에서 31.9%의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었다.

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의 고향인 부산·경남권에서도 25.9%의 지지율로, 23.5%의 지지율에 그친 문 전 대표를 앞서는 등 영남권에서 단연 선두를 달렸다.

강원과 제주에서도 각각 27.3%, 25.3%의 지지로 전 지역에서 20%이상의 고른 지지를 보였지만, 호남에서는 9.6%의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.

문 전 대표는 대구·경북(16.6%)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20%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이며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. 호남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인 26.0%를 얻었다.

고향인 부산·경남에서도 23.5%의 지지율을 보였다. 하지만, 반 전 총장에 오차범위 내인 2.4%포인트 뒤진 결과가 나왔다.

문 전 재표는 수도권에서도 반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1.0%포인트 앞서며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높은 22.7%의 지지율을 얻었다. 이어 대전·충청권역에서는 23.1%, 강원과 제주에서는 각각 20.5%, 21.8%의 지지율을 보였다.

연령대에서도 두 명의 차기 대선주자의 지지는 뚜렷하게 나뉘었다.

반 전 총장은 50세 이상에서 문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, 50세 미만에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 전 총장에 비해 2~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보였다. 반 전 총장은 60세 이상에서 45.4%의 얻어 문 전 대표(9.6%)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. 반면, 문 전 대표는 19~29세에서 27.9%, 30대 32.2%. 40대 27.1%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'사이다 발언' 등으로 지지율 급신장세를 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남에서 14.4%, 강원 11.0%, 수도권 10.8%의 지지율을 얻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호남에서 12.0%의 지지율을 보였다. 지난해 1월1일자 광주일보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20%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빠졌다.

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전·충청권에서 8.0%의 지지율로,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

안 지사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4.7%, 4.3%를 얻었고, 부산·울산에서 3.6%, 대구·경북 3.0%, 제주 2.8%, 강원 2.5%의 지지를 받았다.

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산·경남에서 4.6%, 수도권 4.4%, 강원 4.3%, 대구·경북 3.0%, 대전·충청 2.7%, 호남 1.3%, 제주 1.0%순의 지지율을 얻었다.

박원순 서울시장은 호남에서 5.0%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, 부산·경남 3.7%, 제주 2.9%, 대전·충청 2.6%, 수도권 2.4%, 대구·경북 2.0%, 강원 1.5%순이었다.

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에서 4.7%, 수도권과 제주에서 각 2.8%, 대구·경북 2.5%, 강원 2.2%, 부산·경남 1.9%, 대전·충청 1.2%의 지지를 얻었다.

유승민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와 경북에서 4.5%, 다른 지역에서는 1~2%대 지지를 보였고, 더민주 김부겸 의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와 경북에서 4.5%의 지지를 얻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1%에 못 미치는 지지율에 그쳤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개혁보수신당, 새누리 바짝 추격…국민의당 4위 밀려

■ 정당 지지도

새누리당 비박계가 추진 중인 가칭 '개혁보수신당'이 내년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.

더불어민주당이 30%대의 정당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개혁보수신당이 등장하면서 4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지각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.

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0.1%로 1위를 공고히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4.3%로 2위를 기록했다. 이어 개혁보수신당이 11.7%로 3위를 차지했으며, 3위를 굳건히 지켜온 국민의당은 9.1%로 4위로 밀렸다. 정의당과 기타 정당은 각각 4.4%를 기록했다.

현재까진 새누리당이 개혁보수신당을 2.3%P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작업이 본격화되면 지지율은 다소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.

또 양당 모두 강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당 지지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.

'차기 대선후보 지지인물'을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(59.5%)과 개혁보수신당(37.2%) 모두 15명 후보 중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최고로 꼽았다.

개혁보수신당의 등장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38석으로 3당을 차지한 국민의당은 4당으로 추락했다. 특히 호남권에서 전체 의석 28석 중 23석을 차지해 1당으로 올라섰던 국민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큰 차이로 더민주에 재역전을 당했다. 차기 대선후보 지지자 역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25.6%로 가장 높았다.

이어 ▲이재명(13.7%) ▲안철수·반기문(11.3%) ▲박원순(4.8%) ▲손학규·안희정(4.5%) ▲유승민(2.7%) ▲오세훈(1.4%) ▲남경필(1.0%) 등의 순이었다.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전국 5개 권역 나눠 무작위 표본 추출 유·무선 전화걸기

■ 조사 어떻게

광주일보를 비롯한 각 지역 대표 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(8개사)가 2017년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.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~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7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.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광역 시·도를 7개 권역(수도권, 강원, 대전·충청, 호남, 제주, 대구·경북, 부산·경남)으로 나눠 진행했다.

통계보정은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성·연령·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·스마트폰 앱·자동응답 혼용 무선(85%)·유선(15%) 임의 전화걸기(RDD) 및 스마트폰 알림 혼용방식으로 실시됐다. 전국적인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.2% 포인트다. 응답률은 19.7%포인트였다.

지역별로는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도) ±3.0%포인트, 호남(광주·전남·전북)과 ▲부산·울산·경남 ▲대구·경북 ▲충청(대전·세종·충남·충북)이 각 ±3.1%포인트였고, 강원도와 제주는 각각 ±3.4%포인트, ±3.5%p포인트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